

전주대 개교 60주년

‘미래가치 실현’ 비전 선포

글로벌 대학 새 비전 수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일 예술관 J아트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전 행사로 기념식수 식재, 발전기금 기부자 동판 제작식 등이 진행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전주대발전목회자협의회 전임회장 추이엽 목사(마진교회)의 기도로 시작해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중순 이사장이 '하나님의 약속: 희망'을 주제로 서로 양보와 협력하고 존중하며 희망이 현실이 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길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2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학교 발전을 함께 이끌어 준 국내외 인사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중순 이사장님의 치사와 임정영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주대학교는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지역사회를 혁신하



2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J아트홀에서 '전주대 개교 6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열렸다.

는 대학, 미래 사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JJ VISION 2030을 통해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며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전북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4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 이념으로 개교한 전주대학교는 호남권 기독교 거점 대학으로 정부의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교육과 경영 전반의 성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2일 전주늘푸유치원, 전주문정유치원, 완주삼봉유치원 등 신설 유치원 3곳을 방문했다.

“신설 유치원 새출발 응원”

서거석 교육감, 전주·완주서 3월 1일 개원 3곳 방문

서거석 교육감이 2일 전주늘푸유치원(7학급), 전주문정유치원(7학급), 완주삼봉유치원(10학급) 등 신설 유치원 3곳을 방문했다.

이들 유치원은 올해 신설된 유치원으로, 모두 3월 1일 개원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유치원 버스 등 원하는 어린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비눗방울 놀이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이어 실외 놀이터 등을 둘러보며 유치원 시설 개선 사항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설 유치원이 개원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면서 "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완산경찰서와 서부지구대 합동으로 진행된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에 비상대응팀은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기물파손 등 폭력을 행사하면 신속하게 안전벨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해당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면서 후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해 위협행위를 녹화·녹음해 증거를 수집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을 제압하는 등 실천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착용 가능 동영상 촬영기기인 웨어러블 캠과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을 사용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 상황을 연출했다. /장은성 기자

다문화 학생 자긍심 고취... 올해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90개 초중고교 176명 참여... 전북자치도교육청, 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 또는 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초·중·고교 학생에게 이중언어 맞춤형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0개 초·중·고교에서 176명이 참여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이들에게

지원하는 이중언어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3개를 지원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증가한 올해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등 7개 언어로 확대·지원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학생과 강사를 매칭하고, 학교나 가정 또는 적정 장소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이중언어 교육을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

이다. 지도 시간은 1회에 120분으로 총 20회 운영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돌봄을 위해 이중언어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중언어 능력 개발로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모현초 별빛 도서관

MBS 방송국 개관식

이리모현초등학교(교장 임미성)는 2일 모현 별빛 도서관 MBS 방송국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 모현 별빛 도서관과 익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교내 방송실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모현 별빛도서관은 본관 1층 교실 두 칸 크기(140㎡)에 장서 3만1800권을 보유한 기존 도서관을 복층 형태의 다관방, 계단형 독서 공간, 전면 서가 재배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설치, 별빛이 빛나는 공간에서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중앙현관에서부터 시작되는 파란 계열의 '청찬 춤 교래'와 '어린 왕자' 등 시각적인 독서 독려 구조물을 통해 독서 동기 유발에 힘썼다.

MBS 방송국은 개교 당시 실내에 있었던 곳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방송 송출이 되지 않는 등 학생 재단 대피훈련 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방송국 시설 개선을 통해 유튜브 송출이 가능한 선명한 화질과 명료한 음향 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돼 교직원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에 이흥기 교수 임명

체육과학대학장에 신상민 교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5월 1일자로 이흥기(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산학협력부총장에, 신상민(스포츠지도학과) 교수를 체육과학대학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소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부임해 2008년부터 산업지원부가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총괄하며 한국 수소 산업의 설계도를 직접 제시한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를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연료전지기술위원회(TC 105) 의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수소 중심대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의 역량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흥기 교수



신상민 교수

이흥기 선임 산학협력부총장은 "수소에너지의 시장 확대가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대학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신상민 체육과학대학장은 용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석대학교에는 2009년 부임해 체육부장관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LINC 3.0 사업단 프로그램 설명회

전주기전대학 LINC 3.0 사업단 기업협업센터(ICC)는 지난달 30일 해당 학과 교수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주기전대의 특화 분야인 Heal-being 농생명 IC, Local food 산업 IC, Health & life care IC의 센터장들을 주축으로 전주기전대 IC 특화 분야 소개 프로그램별 안내 △3차년도 성과표 △2차년도 우수사례 등 올해 진행되는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 ICC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산업체 기술사업화 지원 △애로기술 및 경영컨설팅 △기술교류세미나 △재직자교육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이며, 시제품 제작비, 기술지도(자문)비, 국내·외 특허출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약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각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오는 10일까지로 희망 학과 또는 기업은 전주기전대학 홈페이지 산학협력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 위해 '맞손'

전북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협약...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2일 오전 11시 전북대 총장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현제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 정책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자원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학술정보와 인적자원 교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급변하는 기후는 지역, 국가를 넘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구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자원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학술정보와 인적자원 교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급변하는 기후는 지역, 국가를 넘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구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파란사다리 호남제주 주관대학 선정

전북대, 학생 대상 어학연수 글로벌 현장 체험 기회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4년 파란사다리 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 및 글로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개척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본교생 22명과 호남·제주권역 타교생 5명을

함께 선발해 하계 방학 기간 5주 동안의 해외 대학 연수 및 기업 연수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정부(80%)와 전북대(20%)가 나눠 부담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학 프로그램 램비와 기숙사비, 항공료 등의 일체 경비를 지원받는다.

조화림 국제협력처장은 "전북대와 호남 제주권역의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를 열어 줄 파란사다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9일부터 발명교육센터 등 현장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운영을 위해 이달 9일부터 7월까지 현장 방문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16개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에 초등교사 1명이 파견돼 지역 교육 여건에 따라 초·중·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발명·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운영 경험이 있는 교원 9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이 지역별 담당 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센터의 위치, 환경, 시설 등 여건의 적절성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여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선진 운영의 효율성 등이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인재양성 프로그램

홍보·개인진로상담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최근 화과별로 2024년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홍보 및 개인진로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단은 화과별로 참여학생들을 찾아가 2024년 진행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캡스톤디자인 운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여러 경진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취업준비에 한창인 학생들을 위해 취업준비상황 점검, 필요 취업정보 취득 방법,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개인진로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